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

No.06

기술인회 뉴스레터



한국산림기술인회

발행일 :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www.tkfea.or.kr



2023+No.06 주요활동 | 언론·보도 | 인터뷰 | 기고문 | 이벤트 | 읽을거리 | 공지사항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 원고모집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는 회원과 소통 강화를 위해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대상

2023년 회비를 납부한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모집내용

산림 관련 사진, 기고, 수필, 경험담 등 이야기 장르 불문

접수기간

상시모집

제출방법

이메일(shekdms@tkfea.or.kr) 또는 우편 및 팩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6층(둔산동, 사학연금회관)
팩스 : (042) 489-8581

원고분량

A4 1~3장 이내

유의사항

원고 보내시는 분의 기본사항(이름, 연락처, 주소)을 반드시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는 매달 발행됨으로 산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연중 모집하며,
주제에 따라 원고 게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최대 10p이내 A4 한장 이상 분량으로, 사진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뉴스레터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CONTENTS 2023+Vol 06



02 주요활동 및 소식

한국산림기술인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방문
한국산림기술인회 청사 부지 현장 답사 실시
산림청 산림분야 안전보건 관련 특강 사전 회의 열어
「산림기술자 자격·경력 개선방안」 마련 중간보고회 개최

04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올해 말 서비스 개통 목표 ... 맞춤형 편의 기능 강화 주안점

06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과정

사면안정해석 기본역학 이론 및 프로그램 실습교육 제공

08 한국산림기술인회 인터뷰 코너

한국산림기술인회 대전세종충남지회 김종호 지회장

14 숲에서 건강과 여유 찾기

한국산림기술인회 자문위원 겸 전북대학교 박종민 교수

18 읽을거리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안내
현직소방관에게 직접듣는 구급용품 사용방법 (2)멸균거즈
정회원이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
한국산림기술인회 낱말 조합 퀴즈 이벤트
산림 헤드라인 뉴스
지난호 이벤트 당첨자 발표
산림관련 법령정보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QR코드 안내문

32 공지사항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산림기술인회 공지사항 및 회원동정

한국산림기술인회 이만

한국림기술인회의 소

한국산림기술인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방문 ... "시·도지회 활성화"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7월 26일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대전세종충남지회를 방문했다. 이날 정병천 회장은 김종호 지회장을 만나 시·도지회 활성화 방안과 기타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청사 부지 현장 답사 실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7월 27일 청사 부지를 위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답사에서는 청사 부지 후보지인 한국임업진흥원 부여 임산물 교육센터를 방문했으며, 정병천 회장과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이만수 자문위원 등 총 5명은 청사 부지 선정 관련 계획 수립과 활용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이번달엔 어떤일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산림청 산림분야 안전보건 관련 특강 사전 회의 열어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7월 31일 산림청 산림분야 안전보건 관련 특강 사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백석대학교에서 진행했으며, 특강 교육 내용에 대한 협의와 한국산림기술인 교육원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방안 논의 등으로 이뤄졌다.

「산림기술자 자격·경력 개선방안」 마련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8월 16일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자 자격·경력 개선방안」 마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 산림청 등 관계자 총 12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진행사항 점검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안) 검토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 “이용자 편의성 높인다”

올해 말 서비스 개통 목표 ... 맞춤형 편의 기능 강화 주안점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발 빠른 정보화 시대에 맞춰 기존 홈페이지를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전면 재구축한다.

이번 홈페이지 재구축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편의 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뒀으며, 대상 범위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림기술연구원 등 총 3개로 올해 말 서비스 개통이 목표다.

사업 추진에 앞서 기존 홈페이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바일 지원 기능 부족 ▲노후화된 시스템 및 기능 ▲나뉘진 홈페이지로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한눈에 보기 힘든 홈페이지 화면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들고 메뉴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사용이 직관적이고 편리한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과 각종 기능 오류사항 해결 및 빠른 소통이 가능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화된 홈페이지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디자인 및 메뉴 체계를 개선하며, 최신 정보기술과 트렌드를 적용해 기능을 고도화한다.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모바일 중심의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별도 운영 홈페이지 도메인 통합 ▲웹 표준 준수 및 보안 강화 ▲잡은 오류 등 노후화 시스템 및 기능 보완 ▲다양한 모바일 해상도 지원 반응형 웹 기술 적용 ▲각종 업무 처리 전산화·간편화 등이다.

특히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속 첫 화면을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림기술연구원 등 3단으로 구성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블로그 및 밴드와 카카오톡 등 기술인회 공식 SNS와 연동해 보다 다양한 채널로 활동과 정보·콘텐츠를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친화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을 통해 노후화된 시스템 및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및 보안성을 높ی겠다”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홈페이지로 재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과정’ 운영

사면안정해석 기본역학 이론 및 프로그램 실습교육 제공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이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2023년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영향으로 국내에서 기록적인 폭우 현상이 잦아지고 있으며, 장마기간과 강수량 또한 늘어나고 있다. 폭우로 산의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장마철 산사태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산지전용 허가 시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서 작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산림분야에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면안정해석에 대한 기본역학(정역학) 이론과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의 실습교육이 필요하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과정은 사면안정해석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으로, 기초역학의 이해와 사면안정해석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이다.

무박 2일간 대면으로 진행된 교육에는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조사 및 연구 담당자, 산림기술자들이 참여했으며, 교육 첫날에는 기본역학(정역학)과 프로그램 설치, 사면안정 과목을 둘째 날에는 사면안정해석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정역학에서 ▲힘의 평형 ▲지점 반력 ▲전단력·휨 모멘트 ▲트러스 구조해석 ▲단면의 특성 및 응력 등을 다뤘으며, 사면안정해석에서는 ▲붕괴 사유 ▲붕괴 징후 ▲비탈면 안전 공법의 종류 ▲전산 지반공학 등의 내용을 제공했다.

특히 지반 구조 및 토목 등의 전문가가 직접 강의에 나서 사면안정해석에 대한 기본 이론을 교육해 사면안정해석의 산림분야 접목성·필요성 및 이해도를 높였다는 게 교육생들의 평이다.

한 교육생은 “기본 개념부터 실제 프로그램 실습까지 진행해 이해가 쉬웠고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 같다”며 “사면안정 해석 교육은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서 작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타 교육기관과 차별성이 있으며, 앞으로 심화과정이 개설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태 외래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산림분야에서도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서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서 작성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면안정해석의 기본적인 개념과 실습교육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에 도움 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오는 9월 11일 제1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을, 9월 18일 제2기 산림경영기술 전문과정을 개강할 예정이다.

각 교육 신청은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1533-5130 (3번 교육문의)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와 산림기술자의 역할"

한국산림기술인회대전세종충남지회 지회장 겸 감사 및
산림기술사 사무소 김종호 대표





최근 세계 곳곳에서 산림을 위협하는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실화 및 방화 등 사람에게 의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온, 습도, 강수 등 기상요소입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가뭄이 늘어나고 상대습도 또한 낮아지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산불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해 기후가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고 산림 생태계 또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림은 기후변화로 병충해, 가뭄 등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산림기술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림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해 수십 년간 각종 산림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산림기술인회 감사 겸 대전세종충남지회 김종호 지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직책.

지난 2005년에 산림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해 각종 산림 사업에 참여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충청 남도와 관계기관의 산림분야 업무에 대한 각종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림기술인회 대전세종충남지회 회장과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Q. 산림기술사 생활 동안의 보람과 업적은?

그동안 산림기술사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산림을 보고 판단하고 진단하는 눈이 조금이나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곳곳을 다니다 보면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에 참여한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숲을 볼 때 마음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Q.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 현상으로 봄에는 가뭄 때문에 물 부족 사태와 산불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부터 초가을까지는 태풍과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재산 및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산림생태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산림 식생의 멸종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숨 쉬는 산소 공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외 저지대에 있는 피지, 투발루 등 일부 섬나라는 수몰될 위기에 있다는 내용을 마스크를 통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의 침식과 잦은 해일 발생으로 해안가 산림생태계 파괴가 급증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일부 해안선에서는 불과 약 3~40년 전보다 약 30m 이상 침식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안선 변화로 인한 침식도 있겠지만, 최고 만수위가 높아지고 잦은 해일이 발생하면서 해안가 산림의 침식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국토 유실과 더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지역은 산림의 식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대수종인 편백나무가 최근 조림 수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섬 지역에서는 가시나무 종류와 후박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일부 지역에서는 황칠나무 등이 큰 피해 없이 자라고 있어 산림식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남해안 일부에서 발생하던 솔껍질 깍지벌레가 최근에는 충남 해안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이 급증해 산림과 과수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교란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Q. 기후변화 속 산림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근 기후변화로 생긴 기상이변의 대표적인 사례는 가뭄과 산불, 기습적인 폭우와 산사태, 폭염, 돌발해충 등이 있습니다. 이는 거의 재난 수준으로 커져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며, 기상이변 발생의 원인으로는 전 세계적 산업화에 따른 다량 이산화탄소 발생과 탄소흡수원인, 열대우림 등 산림의 무분별한 파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산림을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기능은 ▲목재 생산림, 공익적 기능은 ▲수원함양림 ▲생활환경 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 방지림 등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기술자들은 각종 산림사업을 통해 산림이 기능에 맞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 간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가뭄에 의한 물 부족, 산불 피해, 병해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한 산불이 결국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산불에 대한 대책으로 산불 증가의 원인인 기후변화 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탄소 발생 감소가 필요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산업 발전이 지속되고 있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미 발생한 탄소를 흡수·저장해 원재료를 생산하는 산림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합니다.

또한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이며, 발생 시 조기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산림기술자의 역할은 내화 수림대를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산불에 강한 혼효림을 조성해 산불의 대형화와 급격한 확산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산불 예방 숲 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취약한 지역(마을 주변, 도로변 등)에 산불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Q.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기술자들의 역할은?

전 세계가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대응하고자 탄소 저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연합 등은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등 탄소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인(727,000만 톤 → 436,000만 톤으로) 291백만 톤 중 우리 산림 분야가 전체 11%인 32백만 톤을 감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는 산업 발전으로 인한 탄소 배출 증가와 탄소를 흡수·저장할 수 있는 열대우림의 무분별한 개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파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림을 개발 명목으로 산지전용된 면적은 최근 5년 6개월간(2017 ~ 2022.6.30.) 43,411ha(여의도 면적의 150배)로 개발과 보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산림기술자의 작은 역할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의심도 해보지만, 이미 배출된 탄소를 흡수·저장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나무 즉 산림이 유일합니다. 산림의 순환 경영 및 보전으로 탄소의 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도시 근교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거나 숲 면적을 늘려나가는 것이 산림기술자들의 역할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숲을 가꾸고 보전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큰 아젠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의 산림기술사 인력 부족을 위해 마련돼야 할 제도 개선책은.

산림기술사가 적은 것이 아니라 산림기술사뿐만 아니라 산림기술자 전체가 일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일자리가 충분해야지 유능한 인재들이 언제든지 모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65%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7842억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인 639조 중 0.43%에 불과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산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산림의 중요성에 맞는 예산이 투입되고 산림기술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Q. 끝으로 산림기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실행하는 각종 산림사업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자리라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산림을 새롭게 디자인해 우리와 우리 후손이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강한 지구촌을 위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일터에서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다"

숲에서 건강과 여유 찾기



한국산림기술인회 자문위원 겸
전북대학교 산림환경학과 교수 박종민

2001년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가운데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야외 휴양활동은 등산(산행)이며, 연간 1회 이상 등산하는 인구가 75%로 나타났다.

또 2003년 (주)한국리서치 설문조사에서도 일반인들의 취미활동 가운데 등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인들의 95% 정도는 하이킹 위주의 산행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산림청의 '2021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5.8%가 산림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 방문이 월평균 9.1회로 전체의 46.7%이고, 당일 방문형 40.6%, 숙박형 20.0%로 나타났다.

이렇게 꾸준히 산림을 활용한 여가활동이 등산(산행)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크게 사회적·개인적·정책적 요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회적 요인으로는 조기 퇴직 인원 증가, 여가의 확대, 투어형 등산의 확산, 등산 동호회의 활성화, 환경단체의 체험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고 건강에 관심이 높은 중·노년층과 여성층이 등산 인구로 많이 유입된 것,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는 장점을 들 수 있겠다. 정책적 요인으로는 산림청을 비롯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자체에서 산과 숲의 다양한 이용 서비스 확대, 생활권 주변의 보행형 산행코스의 개발 확대, 숲해설가의 배치를 통한 등산의 만족도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 등산의 목적은 일부 자연과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건강증진, 관광여행, 스포츠적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산을 빠르게 오르내리는 사람을 다람쥐에 비유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본다. 몇 년 전 모 TV에서는 산을 뒷걸음으로 대단히 빠르게 내달는 소위 달인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정해진 코스를 주파하는 등산 활동에서는 산과 숲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수많은 생물적 및 비생물적 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경치, 향기, 소리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또 이러한 산행에서는 산과 숲을 단순히 이용대상으로만 대하는 태도가 생겨나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적을 수 있다.

숲속에서 느끼는 여유와 정서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숲속에서 오감을 열고 느릿하게 걷고 한가롭게 휴식하면서 느끼는 사색, 기쁨, 즐거움, 고마움, 미소, 그리움, 기다림, 희망, 행복 등이며 그것들로 인해 파생되는 여유라고 하겠다.

휴식의 한자인 ‘休息’을 풀어보면 ‘사람이 나무 옆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 된다. 풀어놓아야 할 마음이란 평소 생활 속에서 가지는 시비, 반목, 갈등, 경쟁, 욕심 등이며, 이것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을 배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게 된다.

화합의 중요성은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논어)’, ‘天時가 地利만 못하고 地利가 人和만 못하다(맹자)’, ‘家和萬事成’ 등에서 잘 알 수 있다. 예전의 야외 휴양활동 조사에서 등산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제1순위는 ‘건강에 좋다’이고 제4순위는 ‘마음이 넓어진다’는 응답이 나왔다. 등산하는 목적과 행태와 연관이 있는 순위로 보이지만, 산과 숲에서의 활동이 진정한 휴식이 되고, 그 효과가 마음이 넓어지는 여유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택리지(이중환)』에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을 택할 때 “지리(地理)와 생리(生利, 물산)가 비록 좋다고 하나 인심이 착하지 않으면 필연코 후회할 일이 생기고, 근처에 산과 물을 구경할 만한 곳이 없으면 맑은 정서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한 것과 같이, 서양에서도 ‘Motion이 Emotion을 지배한다’고 한 것과 같이, 숲과의 잦은 접촉은 좋은 정서와 인격을 함양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산과 숲에서의 적정한 의식적인 활동을 통해 영성과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고, 문학 음악 그림 사진 등 예술을 창작할 수도 있다. 숲속에서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즐거움 가운데 으뜸인 것은 독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처사 안석경(1718-1774)은 산속에 머물면서 독서하는 일이 세상의 어떤 다른 즐거움과 바꿀 수 없는 열락(悅樂)임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개 국가권력을 쥐고 9년 동안의 치적을 이룬다고 하여도, 9일 동안 산에 있는 즐거움과 바꿀 수는 없다. 하물며 고요하게 독서하고 한가하게 음송하여 깊은 이치를 천천히 찾아나가고 깊은 맛을 상세히 맛봄으로써 (중략) 사람의 정신과 뜻에 보탬을 줘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필요에 따라서는 오로지 한 가지만 염두에 두고 빠른 산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산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들이 근육운동 위주의 산행에서 탈피해 숲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오감으로 느끼고 완상(玩賞)하는 느린 산행을 많이 하면 좋겠다.

『채근담』에는 “談담山山林림지樂락者자未미必필眞진得득山山林림지之趣취(숲 속의 즐거움을 말로 하는 자는 숲의 참 맛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함)”라 했다. 산책, 명상, 탁족(濯足), 조용한 담화, 독서, 식물탐사, 사진이나 그림그리기 등 숲 속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여유는 마음껏 누리면 좋겠다.

숲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휴양활동을 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숲이 건강해야 사람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숲이 건강하다는 것은 수풀들과 숲길들과 그 안의 모든 생명체들이 더불어 건강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국민들은 100대 명산이니, 편백숲이 산림치유에 좋다느니, 어느 곳의 숲이 어느 계절에 경치가 좋다느니, 소문이 나면 그곳에 집중해 그 좋은 산과 숲이 몸살을 앓게 하고 심지어 망가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정서가 있다. 100대 명산이 아니어도 나름대로의 기개와 운치가 있고, 편백숲이 아니어도 정도의 차이뿐 모든 숲에서 피톤치드가 나오고, 유명한 숲이 아니어도 어디에 가나 계절 따라 절경을 뽐낸다.

2022년부터 산림청은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를 표방하고 있다. 산주, 임업 종사자, 국민이 모두 숲으로부터 소득과 복지 등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면서 삶의 질 향상에 산림과 산림정책이 기여하자는 비전인 것이다. 우리 산림기술자들도 산과 숲을 경제활동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일터에서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허가없는 임산물 채취는 도둑질입니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엄연한 불법"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해가 짙게 내리쬐던 여름이 벌써 지나가고 입추에 접어들면서 가을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오면 산에는 붉게 단풍 옷을 입은 산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과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 산행을 즐기고자 산을 찾은 등산객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을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인 만큼 산에 각종 임산물이 지천이며, 산행 중 버섯과 도토리, 밤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산물에도 주인이 있어 자주 보인다고 멋모르게 채취하거나 집에 가져간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림과 공유림, 사유림 등 모든 산림에서 무단 임산물 채취는 불법으로, 모든 산림은 주인이 있고 소유자 동의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교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1000건 가까이 임산물 불법 채취가 적발되고 100명 이상씩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나라 산림과 자원을 여러분의 손으로 지켜주세요.**

임산물이란?

산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을 임산물이라 하며, 가을에는 은행, 도토리, 밤, 버섯 등의 임산물이 있습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등 모든 산림 내에서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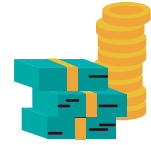


처벌은 어떻게?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미수범도 처벌 대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단순 차량통행 포함)



10만원 이하 과태료

더 알아보기

국유림 : 나라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

공유림 :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사유림 : 개인 또는 사법인이 가진 산림

이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및 산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산림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

적발된 임산물은 어떻게 되나요?

임산물 불법 채취 적발 시 가격과 종류에 상관없이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압수됩니다.

임산물 불법채취 발견 시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자 또는 의심자를 발견했을 시 각 지자체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주인없는 임산물은 없으며,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 생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주세요.



위급상황에는 어떻게? "현직 소방관에게 직접 듣는 구급용품 사용방법"

생활응급처치 정도 수준에서 관심 갖고 연습해 보는 노력 기울여야

글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외래교수 겸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위 차윤영



산림작업 현장에서 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사고를 당할지 모르며, 같이 일하는 동료 또는 나 자신이 언제든지 위급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현장에서든지 구급용품이 구비돼 있고 사용방법만 숙지하고 있다면 재난 및 재해 등 사고 발생 시 생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림기술인회는 현직 소방관에게 직접 위급상황 시 구급용품 사용방법을 전해 듣고 이를 시리즈로 제작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의 외래교수이자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서 근무중인 차윤영 소방위가 두번째로 소개하는 구급용품은 '멸균거즈'입니다.

차윤영 소방위가 전하는 멸균거즈 이야기!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응급처치 혹은 생활응급처치 분야에서 보면 응급처치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은 더할 나위 없이 높은 것에 비해 일반인들의 생활응급처치에 대한 상식과 능력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낮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병·의원 진료 혹은 응급실 진료 역시 언제든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크게 발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 개개인이 사소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가벼운 상처에 대처하며, 생활응급처치 정도의 수준에서 관심을 갖고 연습해 보는 노력은 점점 드물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소한 모든 지식을 개개인이 일일이 익힌다는 것은 사뭇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법 강좌나 강습이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서는 취미라고 하는 영역에서 각종 분야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굳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부상의 처치가 아니라도 등산 낚시, 해양스포츠, 자전거 등 각종 취미활동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응급처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부담스럽거나 비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취미로 익힌 응급처치법으로 타인이나 가족 심지어 스스로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는 얼마나 가치 있는 노력이겠습니까.

이에 이번에는 응급처치의 기초 중에 기초인 ‘상처 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체온조절 기능과 방수 및 증발 억제, 그리고 세균 침투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심각한 상처가 아니더라도 피부가 벗겨지거나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면 그 개방된 피부를 통해 혈액 등 체액이 흘러나오고 반대로 세균들이 침입하기에 아주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일회용 밴드나 거즈 등을 덮어 상처를 보호하는데 이것을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상처 드레싱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로 세균 침투를 막는 것이고, 혈액 등 삼출액을 흡수해 상처치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처가 깊게 파이거나 길고 깊게 찢어진 경우라면 병·의원(외과, 일반외과, 성형외과) 진료를 통해 상처를 봉합해야지만 상처가 덧나지 않고, 치료가 빠르며 흉터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가벼운 찰과상, 열상, 등은 상처 부위에 적절한 소독과 드레싱만 제대로 처치한다면 충분한 치료가 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잠깐 알아보고 가기!

멸균거즈란?

멸균 후 포장해 소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즈를 말합니다. 환자의 상처나 외상 부위를 보호하고 감염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피부 재생과 상처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제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손상된 거즈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1, 2 차윤영 소방위가 멸균거즈 사용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병원에서 봉합이나 드레싱 처치를 받은 경우에도 봉합 부위를 소독하고 거즈를 교체해 주는 상처 관리는 각자가 스스로 충분히 실행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작한 응급처치 매뉴얼들을 보면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필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레싱은 개방성 상처 위에 덮기 때문에 상처에 직접 닿게 됩니다. 따라서 드레싱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종류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독된 것, 소독 드레싱이 없다면 깨끗한 천을 사용한다. (예 : 손수건, 세탁된 천, 수건)
- 상처보다 큰 것.
- 두껍고 부드러우며 누를 수 있어서 상처 위로 고루 압력이 퍼지는 것.
- 흡착성이 있는 드레싱을 사용한다.

드레싱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혈
- 감염과 오염 방지
- 혈액과 상처 부위의 분비물 흡수
-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

주의! 하지 말아야 할 일

- 상처를 만지거나 상처에 닿는 부분의 드레싱은 손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상처나 드레싱 위에서 기침하지 않고, 되도록 숨을 쉬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



사진 3 멸균거즈와 탄력붕대



사진 4 이스라엘 밴디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상처 처치와 지혈에 대한 응급처치 매뉴얼은 광범위한 종류의 상처나 외상을 입은 상황에서 통용되도록 아주 일반적이고 지극히 적절한 처치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깨끗한 천이나 깨끗한 수건 등의 형견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그런 것들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고 준비성이 철저한 성격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완전 멸균되었고 밀봉되어 있으며, 가격마저 저렴한 멸균거즈를 소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겠습니까.

제가 15년 정도를 현장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를 돌아켜볼 때 안전규정은 점점 더 엄격하게 지켜지게 됐으며, 안전장비들은 발전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은 철저해져 가는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 현장에 비치된 응급처치 장비는 변변한 거즈 한 장이 없어 목에 걸고 있던 땀 절은 수건이나 환자의 겹옷을 찢은 천 등 급한 데로 아무거나 돌돌 말아 지혈해 놓은 상황은 아직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처치를 해놓은 상황, 그런 케이스들 자체가 드문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멸균거즈 두 팩을 사는 비용과 이 거즈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아는 정도의 노력은 아주 소소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병원에서도 비 멸균 거즈를 싸게 구입해 간호사들이 일일이 고압 멸진기라는 기계로 멸균 처리해 사용했지만 요즘은 물가에 비해 멸균거즈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멸균거즈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만약 소규모 산림경영체에 소속된 작업자들이 개인별로 응급키트를 구성한다면 1인 키트에서는 멸균거즈(4×4인치) 2봉, 압박붕대(4인치 폭) 1개로 꾸러 적당한 크기의 파우치에 넣어 소지하는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자의 배낭에 과도한 무게를 추가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山愛山哀 (산애산애) 산재나 공상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글_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이태익님



울산에서 숲 가꾸기 작업을 할 때의 일이다. 우리 팀에서 기름돌이 일을 맡아보던 종석이가 잠시 고향에 다녀올 일이 생겼다. 어머니가 넘어져 고관절을 다쳤다는데 내려가서 한번 보고 와야겠다는 것이다. 우리 팀은 앞톱과 뒷톱 다섯 개 조에 기름돌이 한 명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는 풀베기, 재선충, 어린나무 가꾸기 등등 산에서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깔끔하게 완수해 내었다.

저마다 기술이 뛰어나고 관련 지식은 풍부했으며, 무엇보다 팀워크가 좋았다. 주어진 일을 마치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일사불란하게 처리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후임자를 구하기 전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고 종석이가 어렵게 말을 꺼낸 지 얼마 지난 후 인력 시장에서 적당한 사람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다.

그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기관지가 나 빠져 공기 좋은 산에서 일해보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산일은 처음이지만 밑에서 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큰소리쳤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별 기술 없이 이것저것 시키는 일만 해온 사람에게는 다를 게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산에서 하는 작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고 그에 따른 기술과 계획도 모두 다르다. 종석이가 돌아올 때 까지만 있을 사람에게 그런 것을 설명해 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아마도 그의 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했지만, 근무 조건이야 인력 시장을 통해 이미 알고 있을 터이니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길 내심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실망한 것은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는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물었다. 참과 점심은 어떻게 되는지, 퇴근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자기의 권리에 관해서는 낱낱이 물어보았지만 해야 할 일에 관해서는 영 관심이 없어 보였다.

기름돌이는 엔진톱으로 작업하는 톱사들에게 수시로 기름과 물을 갖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보직은 명칭에서 이미 짐작했겠지만, 하루 일당이 제일 낮았다. 종석이는 이런 위상의 일을 즐겁게 하는 희한한 사람이다. 그는 산 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저 아래 속세의 건설 현장과 산속의 일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은 사람들이 살 콘크리트 집을 짓지만, 산일은 나무들이 살 숲을 만드는 것이다. 속세의 현장은 사람이 만든 일정에 따라 일을 하고 산속의 일은 자연이 허락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도시의 현장에서는 시계가 퇴근 시간을 정해주지만 산속에서는 하늘과 바람이 정해준다. 그러므로 이 풋내기가 궁금해하는 퇴근 시간을 정확히 알려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하늘과 바람이 하는 말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풋내기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기름통을 어떻게 들고 다녀야 하는지는 제 마음대로지만 안전 문제는 반드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경험 많은 톱사는 잠깐 방심할 때 사고가 나지만 풋내기들은 언제나 사고가 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니 이것만 명심해라. 톱사들 뒤에 바짝 붙지 말고 그가 톱을 멈추고 돌아서서 부르면 그때 다가가야 한다.

한여름 작업은 힘이 들기 때문에 혹서기에는 새벽 일찍 일을 시작해서 12시 전에 끝낸다. 그들이 있어 숲 가꾸기 작업이 풀베기보다야 낫지만, 눈을 찌르는 땀과 수시로 덤벼드는 벌은 가혹한 시련이다. 나는 벌에 쏘였을 때 먹는 약과 연고 그리고 지혈제를 항상 배낭 안에 넣어 다닌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바다에 이르듯이 머리에서 흘러내린 땀이 발바닥에 질퍽하다. 여기가 산인지 바다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몽롱해지는 바로 그 순간 사고가 난다. 말벌이 소리도 없이 다가와서 쏘며, 잘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공중으로 튀어 올라 톱사를 위협한다.

때로는 엔진톱이 직접 덤벼들기도 한다. 그때 나는 상수리나무 그늘에서 준공 일자까지 남은 일수를 세고 있었다. 전날 작업 후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은 어떻게 하든 공기만 맞춰달라 했지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으며, 바람 방향이 바뀐 것이 불안했다. 지금까지 남동쪽 계곡에서 올라오던 바람이 오늘은 북서쪽 능선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얼마나 올지는 몰라도 비가 올 것이다. 햇벌이 내리쬐고 있지만, 그 안에 몸을 숨긴 음침하고 우울한 징후를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비가 내리면 실 수는 있지만 일당은 없다. 무엇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져 있을 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으악! 하는 비명이 후텁지근한 대기와 함께 계곡을 타고 내려갔다.

비명을 듣자마자 즉시 배낭을 들고 급히 달려갔다. 풋내기의 왼쪽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고 있었다. 톱이 무릎을 스쳐 지나간 것이었다. 옷을 내려보니 10cm 가량 찢어진 곳에서 피가 솟아오르고 있었으며, 장엄한 초록의 바다에서 그것은 더욱 선명하고 강렬하게 느껴졌다.



뿔내기는 전신을 벌벌 떨었다. 나는 지혈한 후 상처를 조금 벌려보니 톱이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압톱이 나무를 넘기면서 전진하면 뒷톱은 따라가며 가지를 정리한다. 압톱이 자신의 작업장을 정리하기 위해 톱을 돌리는데 뿔내기가 그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병원에 가기 위해 산에서 내려가고 있었다. 뒤에서는 엔진톱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울어대고 앞쪽의 먼 산에서는 멧비둘기가 엇박자로 울고 있었다. 그는 내 어깨에 오른팔을 걸치고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고 나는 안전교육을 했기에 그나마 이 정도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다.

차가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한참을 더 걸어야 했다. 우리 두 사람의 발길을 휘어 감듯이 대기가 눅눅했다. 건설 현장에서 좋은 공기 속에서 일하려고 올라온 그의 처지를 생각하니 측은한 마음이 울컥 올라왔다.

“소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산재로 처리할지 공상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으니 원하는 대로 하라며 설명을 해줬다. 공상은 회사에서 치료비와 일을 못 하는 동안 일당의 100%를 지급한다.

그러나 비가 와서 팀원 모두 일을 못 하게 되면 일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산재로 처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와 일당을 무조건 지급한다. 하지만 일당의 70%만 지급한다.

“어느 것이 유리합니까?”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산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 후 우리의 대화는 끊어졌다.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그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문을 구했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인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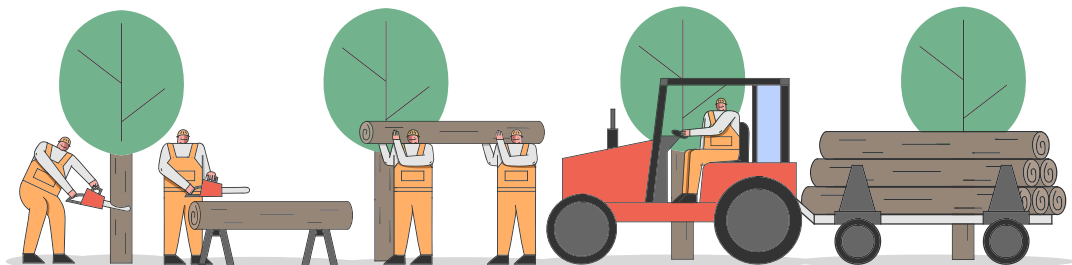


사진제공_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이태익



갑자기 종석이 생각이 났다. 우직한 종석이라면 어떻게 할까? 마침내 그가 말했다. “공상으로 해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의사는 능숙하게 찢어진 곳을 꿰맨 후 일주일 후에 와서 뽑자고 했다. 우리는 병원 앞에서 헤어졌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이었다. 병원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비가 내렸다. 종석이는 예상보다 일찍 돌아와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좋고 일이 걱정돼 안 되겠더라고 말했다. 우리는 간신히 그 작업의 공기를 맞출 수 있었다.

“모든 작업현장에서 최우선은 항상 '안전'입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 제6호

낱말 조합 퀴즈 이벤트

이벤트 기간 8.28 ~ 9.18

Q.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림사업분야에 특성화된 _____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낱말을 조합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안	기	보	술
전	인	건	회

힌트 : ○스넵ㄱ

이벤트에 참여하신 정회원분들 중 정답자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경품으로 발송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23년 8월 28일(월) ~ 9월 18일(월)

당첨자 발표

2023년 9월 25일(월)

참여대상

2023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경 품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추첨 후 당첨자 5명 증정)

- 1 한국산림기술인회 공식 카카오페정을 친구 추가해주세요.
- 2 한국산림기술인회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 3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 (정답, 이름, 생년월일 6자리)를 함께 적어주세요.
(예 : 정답, 홍길동, 800516)

5명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산림 헤드라인 뉴스

FOREST HEADLINE NEWS

- 01** 연천·철원 민통선 내 산림습원 9곳 새로 발견 출처 : 연합뉴스
- 02** 2023 강원산림엑스포 한 달 앞으로... 새만금 반면교사 출처 : KBS
- 03** 서천군, 산림자원 탄소중립위해 가을철 추가 조림 추진 출처 : 대전일보
- 04** 미국흰불나방 확산에 산림병해충 예보 '관심'→'경계' 상향 출처 : 뉴시스
- 05** 폭염 맹위에...도심숲 늘리기 속도낸다 출처 : 서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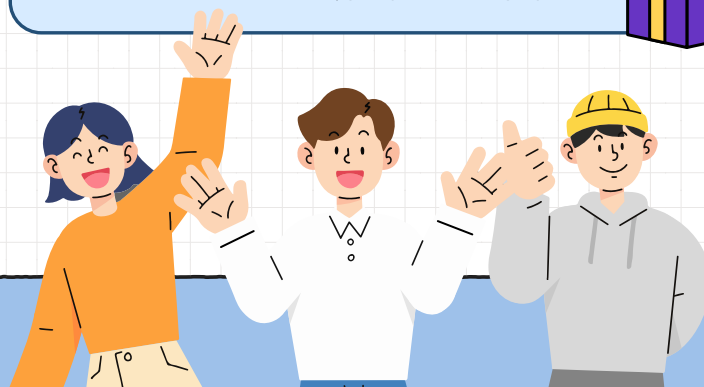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 제5호 이벤트 당첨자 발표

축하합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김0현님

경품 :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품은 당첨자 분께 개별 발송 예정입니다.



산림관련 법령정보

최근 일부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정보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www.tkfea.or.kr)

[열린마당] - [자료실] -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QR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인식 시 법령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0호, 2023. 7. 26., 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 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
 - 현장조사 · 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유림법 시행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4호, 2023. 8. 1., 일부개정]

숲길로 지정 · 고시된 국유림에 풍력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앞으로는 숲길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 노선이 지정 · 고시되지 않더라도 해당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로 ·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함으로써 국유림의 대부로 · 사용료에 대한 납부 부담을 완화.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숲길로 지정 · 고시된 국유림: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을 관할하는 숲길관리청에 의해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 · 고시되어야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6회"를 "12회"로 한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6호, 2023. 8. 16., 제정]

「파리협정」 제5조에서 강령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 전용과 산림훼손 방지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는 등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관리 · 감독 의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 · 운영 근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등을 규정함.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개발도상국산림을통한온실가스배출감축및탄소축적증진지원에관한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탄소흡수원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43호, 2023. 8. 16., 일부개정]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국외 산지전용 억제 등의 시책 수립 ·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및 운영표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QR코드**

간편하고 쉽게 접속해보세요



대표번호 (☎ 1522-5936)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접속QR
휴대폰카메라로QR코드인식시홈페이지로이동합니다.



제2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 산림공학기술분야 교육·훈련 등 전문교육과정

대상 산림사업 관련 기관·단체, 사업주 소속 근무 산림기술자 **장소** 대전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접수 2023.09.08.(금)까지 **신청방법** tkfeaedu.com에서 신청

일시 2023.09.11.(월) ~ 09.15.(금) **문의전화** 1533-5160(3번, 교육문의)



제2기 산림경영기술 전문과정 산림경영기술분야 교육·훈련 등 전문교육과정

대상 산림사업 관련 기관·단체, 사업주 소속 근무 산림기술자 **장소** 대전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접수 2023.09.15.(금)까지 **신청방법** tkfeaedu.com에서 신청

일시 2023.09.18.(월) ~ 09.22.(금) **문의전화** 1533-5160(3번, 교육문의)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산림 및 임업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 대표자의 남다른 경영철학과 기술 및 사업을 소개해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업체 운영에 있어 경영방침, 목표, 핵심가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정회원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회원은 업체명과 간단한 소개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내부 검토 후 선정해 다음 호 뉴스레터에 담을 계획입니다. 업체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shekdms@tkfea.or.kr)

결과발표 선정 업체는 개별 연락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가 있을 시 042-489-85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변경신고·휴폐업신고 공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소통광장 -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tkfea.or.kr

회원동정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원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언제든지 등록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www.tkfea.or.kr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권익보호, 산림기술진흥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자 합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을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언제든지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담당자] 노다운 사원 / E. shekdms@tkfea.or.kr / T. 042-489-8551

작은 소식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band.us/band/81351345>



<https://blog.naver.com/tkfea1234>



https://pf.kakao.com/_xlVJJK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